

농업도 기업화 발상...위험천만

농업분야의 대기업 참여 및 민간자본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진입규제 완화 내용**

농업회사법인 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 제한(현 75%)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의무출자지분(현 행 1/4) 폐지
축산업 투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현행 축산법은 일정규모(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5만수 이상의 양계업) 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
유통·식품 업체 등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유통·식품 업체의 출자 유도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민간으로 대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민간 자본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책지원 시스템을 시장 지향적으로 바꾸고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농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농축산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농업분야의 대기업 참여와 민간자본 확대는 농업의 기업화, 자본화를 가속화시켜 이윤만 추구하는 대기업이 농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이를 전면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농민이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이나 민간업체들은 농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유통 및 가공분야에 전념할 것이며 자칫 수익 창출을 위해 외국 농산물 수입에 열중할 여지가 높아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지취득을 통한 차익을

노리는 민간인들이 농업회사 법인을 우후죽순 만들어 난개발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대기업 진출은 농민들의 소득 경쟁력을 더 낮추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져 고용농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기업 진출과 민간자본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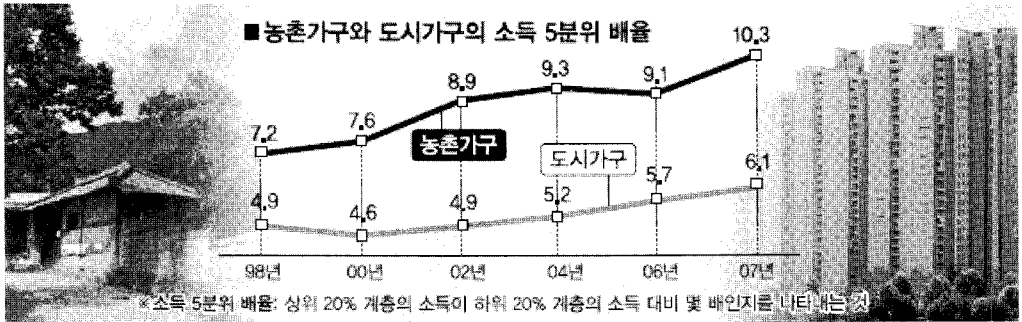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구성하는데 민간 자본 제한이 폐지되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수익을 중시하는 대기업은 유통이나 가공쪽에 주력하면서 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가 상·하위 20% 소득격차 10배

농촌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하위 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2007년 1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소득 수준 하위 20%인 농가의 소득이 상위 20%가 버는 것의 10분의1도 안 된다. 같은 해 도시지역의 5분위 배율이 6.1배인 것을 감안하면 농촌의 소득 양극화가 도시보다 훨씬 심하다는 얘기가.

지난 2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국내 농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10.3배로 나타났다. 1995년의 5.6배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벌어진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농가 소득 5분위 배율은 99년 8.0배, 2000년 7.6배, 2001년 8.0배, 2002년 8.9배, 2003년 16.9배, 2004년 9.3배, 2005년 9.3배, 2006년 9.1배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2003년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당시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일시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등)

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하위 20% 농가의 평균 소득은 98년 588만 6000원에서 2007년 739만 2000원으로 25.6%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같은 기간 4252만 6000원에서 7601만 1000원으로 78.7%나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의 경우 95년과 비교하면 소득이 오히려 805만 3000원에서 739만 2000원으로 8.2% 줄었다. 소득이 연간 1000만원도 안 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어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2003년 전체 농가의 59.0%였던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농가는 2007년 62.1%로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농가, 시설농가 등이 대형 화하고 쌀농사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이 늘면서 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하위 계층은 노령화, 영세성 등으로 한계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95년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95% 수준이었으나 2002년 73%까지 떨어졌고 이후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다 2007년엔 72.5%로 다시 벌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도·농간 격차가 더 컸다. 상위 20% 농가의 소득은 도시의 상위 20% 가구 소득의 90.8%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도시의 하위 20% 가구 소득의 47.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불황엔 발효유보다 흰우유 인기

불경기엔 비싼 발효유보다는 흰 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우유는 지난해 9~10월 가격이 17~2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높은 판매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훼미리마트에서 흰우유의 매출은 전년대비 무려 60% 이상 상승했다. 가격 인상폭을 고려하더라도 30%이상 매출이 성장한 것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입지한 점포에서는 흰우유 매출이 2007년 대비 무려 94%나 뛰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월 불가리스 등 발효유는 흰우유 성장세의 절반 이하인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판매량은 2007년보다 3%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GS25에서도 지난해 동안 흰우유의 매출은 약 24% 가량 늘었지만 발효유는 이의 절반 수준인 14%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불황에 비싼 돈으로 보양식을 먹지는 못해도 싸면서도 몸에 좋은 것을 찾는 경향이 짙어 발효유보다는 흰 우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발효유는 흰 우유(200ml기준) 보다 300~500원 가량 비싸다. 대형마트에서는 작년 한해 발효유 매출신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돌아섰다.

축단협, 사료원가 공개 요구

최근 사료회사들이 사료값 인하를 단행한 것과 관련, 인하폭과 시기에 있어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축산단체들의 사료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사료값 올릴땐 비호, 내릴땐 거북이, 소가 짓겠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료업체들의 알뜰한 상흔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축단협측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1월 22일부로 사료값 5% 인하를 단행한 것은 참으로 박수받을 일이지만 축산인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며 인하폭이 그동안 폭등한 가격을 상쇄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료업체들이 지난 2006년부터 사료값을 십여차례 올릴 때는 국제곡물가격, 운임 등을 운운하며 비호같이 올렸지만 정작 큰 폭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환율 불안과 누적저자를 내세우며 사료값 인하에 대해 거북이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

축단협측은 국제 곡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사료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대책은 커녕 사료용 근채류와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폐지와 축산업 대기업 진입규제를 풀 정부에 대해서도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원가공개를 통한 사료값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료업체들에게도 축산농민을 상생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사료값 인하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대표 선출 방식 유지해야

정부는 지난 2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인사위원회 도입과 조

합 간 경쟁체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농협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은 사실상 확정이 됐고 국회 논의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폐지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자의적 인사개입을 차단하는데 있어 현재처럼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는 농축협 통합정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월 5일 성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어 약이 되는 법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개정내용 중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고수시 축산농민에게는 악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토록 하는 현행 농협법으로 개정됐다"며 "통합정신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특례조항이 폐지된다면 그 다음은 농업경제, 축산경제 통폐합이 정해진 수순으로 축산소외는 더 이상 안된다"고 지적했다.

빠르면 6월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농식품부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한 직불금을 해당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친환경안정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을 일선기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축산농가는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을 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급단가

축종	유기인증	무항생인증	비고
한우	17만원/ 마리	6만5000원/ 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지급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지	1만6000원/ 마리	6000원/ 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의 경우 육계의 50% 증액

지원대상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로서 신청일 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았고 '친환경농업육상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 및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적용을 받지 않는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또 지급대상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가 입증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 17만원/마리, 무항생제 6만5000원/마리이며 육우는 한우의 50%를 감액해 지원한다. 또 젖소(우유)의 경우에는 유기 50원/ℓ, 무항생제 10원/ℓ이며, 돼지는 유기 1만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이다. 산란계(계란)의 경우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이며, 육계는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이다. 토종닭의 경우 육계의 30%를 증액 지급한다. 그러나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0만원/연간으로 설정돼 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특히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지급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적인 경우에는 3회만 지급된다.

원유생산량 최근 10년간 '최저지로'

낙농진흥회가 최근 발표한 국내낙농산업 동향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낙농가수는 7000호로 전년동기 7657호 대비 8.6%나 감소했으며, 전분기 7159호 보다도 2.2%나 줄었다. 또 사육두수는 44만5775두로 전년동기 45만3403두 대비 1.7%가 하락했다. 다만 규모화 추세에 따라 호당사육두수는 63.7두로 전년동기 59.2두 대비 7.6%가 늘었다.

젖소산지가격은 2008년 12월기준 초임만삭 가격이 220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254만6000원으로 대비 13.5%가 하락했으며 전분기 231만3000원 대비 4.8%가 감소했다. 600kg기준 젖소수소가격은 223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2%, 전분기대비 2.3%가 줄었다.

2008년 누적 원유생산량의 경우에도 213만8802톤으로 전년동기 218만7824톤대비 2.2%가 줄었다. 다만 2008년 평균 원유생산자가격은 기본가격 인상에 따라 ℓ 당 770.1원으로 2007년 평균 728.5원 대비 5.7%가 상승했다.

이울러 원유수급과 관련해서는 생산부분에서는 환율 및 사료값 상승, 소비부문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각각 감소를 했다. 2008년 4/4분기 기준 국내원유생산량은 51만5372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3.3%가 줄었고 수입량도 22만656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가 줄었다. 국내소비의 경우에도 72만5193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1%가 줄었으나 수출도 1만4981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량은 9만6342톤으로 전년동기 10만7325톤 대비 10.2%가 줄었다. ☺

〈자료출처〉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축산경제신문 등)